

# 세계도시동향

헤드라인뉴스	1	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예방 우선순위 설정	런던
문화·관광	3	“슬럼화 우려 지하철 공간, 특색있는 예술공간으로 재생”	런던
산업·경제	5	푸드트럭 관리로 먹거리 다양화·재정수입 증가 도모	파리
사회·복지	7	‘노인학대 사전 발굴해 대응’ 통합서비스 모형 구축	빅토리아
행정·교육	9	흑인 저소득층 대상 기술직 취업 무료 교육	피츠버그
환경·안전	10	폭포 주변 버려진 공장지대, 산책로로 ‘재탄생’	오리건
정보·기타	12	시민의견 문자메시지로 수렴해 도시계획에 반영	뉴욕

##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예방 우선순위 설정

치안 확보 목적...성·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는 반드시 포함해야

영국 런던시 / 환경·안전

- 영국 런던시는 2017년 발표한 ‘새로운 치안·방범 계획’(the New Police and Crime Plan)에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예방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, 이와 별도로 모든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예방해야 할 고위험 범죄를 지정하여 치안 확보를 꾀함
  
- 개요
  -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계획 수립의 필요성 제기
    - 중앙의회에서 설정해 지역으로 하달하는 기존 치안계획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 제기
  - 런던 치안·방범 부시장(Deputy Mayor of Policing and Crime) 소피 린든(Sophie Linden)이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32개 지자체장과 경찰 관계자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예방 우선순위를 논의
    - 관련 기관 및 시민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치안 확보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
  - 경찰·사법 서비스의 향상,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 수호, 여성 폭력 방지, 외국인 혐오범죄 대응 등
  
- ‘지역 범죄예방 우선순위’(Local Borough Priorities)를 설정
  -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2가지 핵심 대응 범죄를 설정
    - 자치구별 범죄 데이터, 증거자료 및 문헌자료, 해당 지역의 경찰과 주민의 경험을 토대로 설정
    - 해당 범죄자의 체포뿐 아니라, 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선제 조치를 취함
  - 각 자치구에서 주로 설정한 범죄예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
    - 1순위: 절도, 비내국인 상해, 강도, 빈집털이 등
    - 2순위: 비내국인 상해, 강도, 절도, 차량절도, 폭행 등

- 자치구별 범죄예방 우선순위는 매년 업데이트가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변경 가능
- 예방을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하는 고위험 범죄를 별도로 지정
  - 모든 자치구는 다음 고위험 범죄를 범죄예방 우선순위에 포함해야 함
    - 성폭력(sexual violence), 가정폭력(domestic abuse), 아동 성 학대(child sexual exploitation), 무기 관련 범죄(weapon-based crime), 증오 범죄(hate crime)
  - 각 자치구는 범죄행위 이외에도 우선적으로 예방해야 할 반사회적 행동(ASB: Anti Social Behaviour)을 내부회의를 거쳐 지정

<https://www.london.gov.uk/what-we-do/mayors-office-policing-and-crime-mopac/police-and-crime-plan-safer-city-all-londoners>

<https://www.london.gov.uk/what-we-do/mayors-office-policing-and-crime-mopac/about-mayors-office-policing-and-crime-mopac-3>

[https://www.london.gov.uk/sites/default/files/pcp\\_local\\_borough\\_priorities\\_2017-18.pdf](https://www.london.gov.uk/sites/default/files/pcp_local_borough_priorities_2017-18.pdf)

정기성 통신원, jkseong71147@gmail.com

## 문화·관광

### “슬럼화 우려 지하철 공간, 특색있는 예술공간으로 재생”

영국 런던市 / 문화·관광

- 영국 런던市는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지하철 공간이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수준 높은 현대미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이 공간을 특색있는 예술공간으로 꾸미는 재생 사업을 시행 중
- 지하철 예술 프로젝트 ‘아트 온 더 언더그라운드’(ART on the UNDERGROUND)
  - 런던시·런던 지하철공사·런던 교통공사가 후원하는 프로젝트 기업
  - 150년이 넘는 복잡하고 오래된 런던 지하철 공간의 고유한 맥락을 살리면서 예술을 통한 재생을 추구하는 쇼케이스 프로젝트
  - 런던 지하철 공간을 하나의 문화·사회적 환경으로 인식하고, 이를 능력 있는 예술가의 다양한 예술활동을 전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
  - ‘아트 온 더 언더그라운드’가 추구하는 중요한 사명은 다음과 같음
    - 런던시민과 지하철 이용자를 특별한 관객으로 인식하고 높은 수준의 현대미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
    - 찾아가는 예술로 지하철 공간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적 경험을 변화시켜 런던 지하철과 시민의 관계를 강화
    - 런던 지하철의 디자인 및 예술적 유산을 확립
    - 유명한 작가부터 신예 작가까지, 전 세계의 능력 있는 예술가의 작품을 런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
- 주요 활동
  - 지난 15년간 ‘지하철 노선도 책자 디자인’과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‘런던 전체 지하철역 디자인 프로젝트’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전시를 기획

- 2013년 마크 웰링거(Mark Wallinger)의 '라비린스'(Labyrinth) 기획전
  - 런던 지하철 150주년을 맞아해 런던 전역 270개 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예술 프로젝트
  - 작가는 세계적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'터너 프라이즈'(Turner Prize)의 수상자



그림. Labyrinth, 마크 웰링거, 그린파크 역, 2013

- 2016년 '열린 런던'(London is Open) 기획전
  - 사디크 칸(Sadiq Khan) 시장이 추진한 '열린 런던' 캠페인의 하나로 기획
  - 런던의 개방성(openness)·국제성(internationalism)·다양성(diversity)·공통성(commonality)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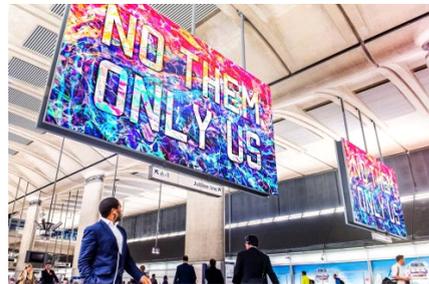


그림. (좌) Everyone Welcome, 데이비드 슈리글리(David Shrigley), 2016

그림. (우) No Them Only Us, 마크 티츠너(Mark Titchner), 2016

<https://www.london.gov.uk/about-us/mayor-london/londonisopen>

<https://art.tfl.gov.uk/>

정기성 통신원, jkseong71147@gmail.com

## 산업·경제

### 푸드트럭 관리로 먹거리 다양화·재정수입 증가 도모

프랑스 파리市 / 산업·경제

- 프랑스 파리市는 2000년대 초부터 유행했던 푸드트럭을 2016년부터 먹거리 다양화와 재정수입 증가를 위해 시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·관리하고 있으며, 철저한 위생관리와 엄격한 메뉴선정으로 많은 시민에게 인기
- 배경
  - 미국서 들어온 푸드트럭을 파리시 미식 문화의 일부로 개발
    - 프랑스의 푸드트럭은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들어와 유행하기 시작
    - ‘미식의 수도’라는 이미지 마케팅을 자주 했던 파리시는 고유의 음식문화에 ‘스트리트 푸드’(Street Food)라는 새로운 장르의 개발을 추진
  - 길거리 음식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위생과 질을 시정부가 보장
    - 음식점 관련 규제가 강한 프랑스의 기준에 따라 파리시가 직접 음식의 위생과 질을 관리
    - 패스트푸드처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의 질을 담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
- 주요 내용
  - 2016년 56개의 푸드트럭을 심사를 통해 선정·운영
    - 친근한 프랑스어 이름 ‘포포트 롤랑트’(popotes roulantes: 달리는 식당)로도 불림
  - 2017년에는 총 19곳의 지정장소에서 시간대를 나누어 25개의 업체가 영업
    - 19개의 지정장소에 심사를 거쳐 선정된 25개의 업체가 점심과 저녁시간을 나누어서 영업
    - 주민 음식 문화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하나의 푸드트럭이 한주에 이틀만 같은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

- 계약 기간은 2년이나, 1년 뒤 재심 평가를 통과해야 1년을 더 영업할 수 있으므로 위생과 음식의 질 관리가 가능
- 파리 경시청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, 규칙을 어기면 허가가 바로 취소될 수 있음
- 푸드트럭은 장소의 상업성에 따라 4시간당 각각 70, 110, 135유로(한화 9만원, 14만 원, 18만 원)의 임대료를 파리에 납부
- 기타 사항
  - 전통 프랑스로부터 햄버거 같은 대중음식까지 다양한 장르의 요리를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메뉴를 선정
  - 주변 상권과 공공 공간을 존중하기 위해 시는 각 구의 협조를 받아 위치를 선정
    - 단순한 상업적 목적의 기획이 아닌 파리의 미식 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는 의미
  - 다른 길거리 음식과 달리 시정부가 직접 관리하여 음식 문화 개선에 도움

<https://www.paris.fr/actualites/des-food-trucks-dans-les-rues-de-paris-2697>

배세진 통신원, prophet1013@gmail.com

## 사회·복지

### ‘노인학대 사전 발굴해 대응’ 통합서비스 모형 구축

호주 빅토리아주 / 사회·복지

- 호주 빅토리아주는 최근 노인학대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, 노인학대 의심사례를 사전에 발굴해 대응하기 위한 통합서비스 모형(Integrated Model of Care for Responding to Suspected Elder Abuse)을 구축
  
- 배경
  - 2016년 발간한 ‘가정폭력 백서’에서 노인학대 문제를 새롭게 부상하는 가정폭력 문제로 지목
    - 백서는 가정폭력 논의가 주로 여성과 어린이에게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노인학대 문제가 잘 포착되지 않고 과소 보고되었음을 지적
  - 2013~2014년 65세 이상 인구 중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수된 노인은 여자가 1,359명, 남자는 878명
    - 이는 빅토리아주 전체 인구와 성비를 바탕으로 역산해보았을 때, 가정 내 노인학대 사례가 명백히 과소 보고되고 있음을 시사
  - 노인학대가 잘 드러나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인식 부족과 정책 미비
    - 노인 스스로가 학대를 노령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 가족관계의 일부로 여기는 경향(사회문화적 원인)
      - 노인세대는 젊은세대보다 학대에 수용적이고 가족관계에 외부기관이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
    - 보건·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도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관련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·조직적 준비가 부족(정책적 원인)
  - 노인학대의 특징 중 하나는 재정적 학대와 방임
    - 재정적 학대는 노인의 재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사례
    - 방임은 주로 노인의 돌봄 요청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 발생

- 주요 내용

- 가정폭력 백서에서 제시한 노인학대 대응의 주요 원칙
  - 노인학대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해 가족·친구의 신고를 활성화
  - 노인계층에게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
  -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관련 교육 시행
  - 노인학대 피해자가 출가를 원할 때는 적합한 숙소를 지원
  - 문화·언어·성 소수자 노인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
- 노인학대 의심사례 대응 통합서비스 모형의 네 가지 주요 요소
  - 1) 노동력 개발: 지역사회 보건사회서비스 종사자가 노인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를 제공
  - 2) 상담·중재서비스: 병원 등 보건서비스 기관에 상담·중재 서비스 인력을 배치하여, 노인학대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
  - 3) 노인복지서비스팀에 노인학대 담당관(Liaison Officer)을 배치하여 학대를 받고 있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노인에게 조언과 자문 제공
  - 4) 노인학대예방 네트워크 설립: 노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관들을 조직화하여 노인학대 인식을 높이고 예방체계를 구축
- 3개의 보건서비스 기관을 거점으로 지정하여 시범사업 시행
  - 멜번 병원(Melbourne Health), 모내쉬 병원(Monash Health), 라트로브 지역보건 서비스(Latrobe Community Health Service)를 거점으로 지정
  - 장기 서비스 이용자의 절반이 노인이며, 다른 사회서비스기관과 광범위하게 연계하고 있어 노인학대 문제를 포착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효과적
  - 3개 기관의 모든 종사자와 지역사회 협력기관에 노인학대 의심사례를 적발·포착·대응하는 훈련을 제공
- 주정부는 통합서비스 모형 시범사업에 총 120만 호주달러(10억 3천만 원)를 투자할 예정

<http://www.premier.vic.gov.au/tackling-elder-abuse-in-the-community/>

[http://bouverie.org.au/images/uploads/Integrated\\_model\\_of\\_care\\_description\\_and\\_diagram.pdf](http://bouverie.org.au/images/uploads/Integrated_model_of_care_description_and_diagram.pdf)

<http://files.rcfv.com.au/Reports/Final/RCFV-All-Volumes.pdf>

정용문 통신원, junraphael@gmail.com

## 행재정·교육

### 흑인 저소득층 대상 기술직 취업 무료 교육

미국 피츠버그시 / 행재정·교육

-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는 백인에 견줘 취업률이 저조한 흑인 저소득층이 기술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무료 기술 교육을 제공
  
- 배경
  - 흑인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가운데 기술 직종의 흑인 취업률이 특히 저조
    - 미국 대부분 대도시에서 흑인 청년층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
    - 미국 기술 직종에서 흑인 저소득층의 취업률은 7.4~14.4%에 불과
  - 흑인 저소득층은 문화적 차별, 교통수단의 부재, 낮은 소득 수준 등의 이유로 교육의 기회조차 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
  - 2010~2015년 피츠버그시의 백인 취업률은 5% 가까이 상승했지만, 흑인의 취업률은 1% 미만 상승
  - 피츠버그 우버(Uber)사의 흑인 고용 실태
    - 모든 직종을 포괄해서 흑인 취업률은 8.8%이고, 대부분이 비기술 직종
    - 기술 직종에서의 흑인 취업률은 1%이며, 간부급 직종에서 흑인은 부재
  
- 주요 내용
  - 2015년 피츠버그시는 '포용적 혁신 도시'를 선언하고, 고급 기술 산업에서 성별·인종·배경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침을 제시
  - 2015~2017년 '포용적 혁신의 주' 행사를 통해 매년 9일간 기술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술직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
  - 2017년 5월 피츠버그시는 '파트너4워크'(Partner4Work)라는 지역 교육기관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부트캠프(Bootcamp) 형식의 기술 교육을 제공
  - 저소득층의 기술직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책이라는 평가

<https://www.citylab.com/tech/2017/06/can-cities-hack-diversity/527544/>

강민규 통신원, mgkang82@gmail.com

## 환경·안전

### 폭포 주변 버려진 공장지대, 산책로로 ‘재탄생’

미국 오리건市 / 환경·안전

- 미국 오리건市는 뛰어난 자연경관을 지녔으나 공장 설립 이후 150년 이상 시민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윌래밋 폭포(Willamette Falls) 주변의 버려진 공장지대를 산책로로 개발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착수
- 배경
  - 훌륭한 자연경관을 지녔지만 시민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폭포
    - 윌래밋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폭포로 뛰어난 자연경관 보유
    - 1846년 오리건 조약 체결 이후 각종 공장이 폭포 주변에 밀집하면서 시민의 접근이 제한되어 자연경관의 가치 상실
  - 2011년 공장 폐업 이후 ‘윌래밋 폭포의 유산 프로젝트’에 착수
    - 2011년 폭포 근처에서 제지공장을 운영하던 블루헤런(Blue Heron)사가 폐업해 2천여 명의 실업자 발생
    - 시정부는 버려진 공장지대의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
    - 6년간의 협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2017년 6월 구체적인 강변 산책로 개발 계획을 발표



그림. 윌래밋 폭포 전경

- 주요 내용

- 프로젝트의 규모
  - 2,500만 달러(284억 원)의 예산 투자
  - 89,000㎡의 토지를 확보
  - 강을 따라 1/2마일(800m) 길이의 산책로 건설 예정
  - 2018년 착공하여 2022년 완공 예정
- 버려진 공장도 경관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개발
  - 공장 건물은 대부분 철거하되, 건물의 뼈대가 되는 철골 구조물은 과거의 산업화를 기념하는 의미로 유지
  - 공장 건물의 일부를 관광 안내소로 개조
  - 관광 안내소와 산책로 사이에는 계단 형태의 광장을 설치
  - 강 주변을 따라 대대적으로 생태계를 복원
- 오리건시의 침체된 경기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
  - 폭포와 공장지대가 오리건시의 중심가와 가까이 연결되는 이점을 살릴 계획
  - “블루헤런의 폐업과 그에 따른 실업은 우리 지역사회에 큰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.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게 된다면 우리 주민과 기업에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.” - 오리건 시장 댄 할러데이(Dan Holladay)

<https://www.citylab.com/design/2017/06/oregons-niagara-falls-revealed/529272/>

<http://snohetta.com/project/233-willamette-falls-riverwalk>

강민규 통신원, mgkang82@gmail.com

## 정보·기타

### 시민의견 문자메시지로 수렴해 도시계획에 반영

미국 뉴욕시 / 정보·기타

- 미국 뉴욕시 주택보전개발국(HPD:Housing Preservation & Development)은 브루클린 자치구 브라운스빌 구역의 주택 신설 및 시설 정비를 목표로 한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의견을 문자메시지로 수렴해 반영
  
- 개요
  - 뉴욕시는 2017년 5월 브라운스빌 구역에 2,500개의 주택 신설, 문화·오락 시설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‘브라운스빌 계획’(Brownsville Plan)을 발표
    - 2014년부터 4차례의 워크숍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발 계획을 확정
    - 계획 수립 과정에서 6개월간 500여 명의 시민에게 문자메시지로 의견을 수렴해 긍정적 평가를 받음
  - 첨단기술과 데이터를 도시계획에 통합시키려는 시도 증가
    - 특히 지방정부와 시민 사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 관계가 증가하는 추세
    - 미국의 다른 대도시인 애틀랜타, 보스턴, 워싱턴DC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민의견을 반영
  
- 주요 내용
  - 개발 계획의 대상 장소에 직접 시민의견을 묻는 간판과 전화번호를 설치
    - 시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보낼 전화번호를 표시한 간판을 해당 장소에 직접 설치
    - “이 공간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설치해야 좋을까요?”, “골목길이 조금 으스스하네요.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친숙한 길이 될 수 있을까요?”
    - 개발 계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도시 곳곳에 간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

- 지도에서 직접 의견을 확인하고 적을 수 있는 홈페이지도 함께 운영
  - 온라인 플랫폼 ‘코얼바나이즈’(coUrbanize)와 협력해 문자메시지를 받은 위치별로 분류하고 지도상에서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지역별 요구 사항의 흐름을 파악
- 시민의 문자메시지에 시정부는 관련된 도시계획 정책의 근황을 문자메시지로 답장
- 손쉬운 의견수렴의 수단이지만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
  - 여건상 공청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수단
  - 지역 관계자와의 회답이나 공청회와 같은 직접적 방식과 함께 사용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적절



그림. 현장에 설치된 간판.

“이 자리에는 상점이 들어올 수도,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! 무엇을 원하시나요?”

<https://www.citylab.com/solutions/2017/06/how-brownsville-residents-texted-in-their-ideas-for-a-better-community/530223/>

<https://courbanize.com/projects/brownsville/comaps/22>

<http://www1.nyc.gov/site/hpd/community/brownsville.page>

강민규 통신원, mgkang82@gmail.com